

KIND 방글라 협력센터 주간 건설·인프라 동향 보고(10.3)

1. 방글라데시 경제 동향

○ 방글라데시 환율 및 기준금리 추이

Source: <https://www.bb.org.bd/en/index.php/econdata/index>

구 분	내 용	비 고
은행간 환율	110.50 Tk/USD (전주대비 0.00△)	'23.10.03 기준
기준금리	4% 유지	'23.09월 기준
월평균 시중금리	6.41% (전월대비 0.13△)	'23.09월 기준

방글라데시 중앙은행은 아직 2023년 10월 금리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았습니다

○ 방글라데시 국채 금리 추이(현지화 10년물 8.505%)

▼ 8.505 -0.00 -0.00%

출처: <http://www.worldgovernmentbonds.com/bond-historical-data/bangladesh/10-years/>

Yield changed +0.0 bp during last week, +0.0 bp during last month, +23.5 bp during last year.

Current Yield is close to **1 year maximum value**

Period	Change	Min	Range	Max
1 Week	0.0 bp	8.505 % Sep 26, 2023	No change	8.505 % Oct 3, 2023
1 Month	0.0 bp	8.505 % Sep 3, 2023	No change	8.505 % Oct 3, 2023
6 Months	0.0 bp	8.505 % Apr 3, 2023	No change	8.505 % Oct 3, 2023
1 Year	+23.5 bp	8.210 % Oct 16, 2022		8.510 % Jan 14, 2023

Current Yield: **8.505%**

Last update 3 Oct 2023 2:15 GMT+0

□ 해외송금 크게 감소, 준비금 부족으로 인한 수출 악영향

- 방글라데시 은행에 따르면 9월 해외 송금액은 13억 4천만 달러로 41개월 만에 최저치 기록, 그러나 23년 회계연도에는 사상 최대인 11.3만 달러를 기록.

- 전년 동기 대비 10%의 성장률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지난 9월 상품 수출액은 지난 5개월 동안 가장 적게 나타남.
- 이 우려스러운 추세는 외환보유고에 추가적인 부담을 주고 잠재적으로 미국 달러에 대한 타카의 평가 절하를 유발할 수 있으며, 결과적으로, 일자리 감소와 생활 수준의 감소로 이어질 수 있음.

□ 외채 1,000억 달러에 육박

- 방글라데시의 전체 대외부채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의 자금 수요 증가에 따라 2023년 6월 1,000억 달러에 육박.
- 2023년 6월 전체 대외부채는 3.35% 증가한 989억 3천만 달러를 기록. 중앙은행 자료에 의하면 2023년 3월에는 957억 달러였음.
- 1년 전인 지난 9월 외채 규모는 929억달러로, 이 수치와 비교했을 때 정부와 민간이 외채로부터 빌린 돈이 6.48% 증가한 것을 의미.
- 2018년 570억 달러에서 73.5%까지 증가한 대외채무는 다자간 및 양자간 자금조달에서 공공부문 차입이 4.27% 증가했음을 보여줌.

2. 건설·인프라 시장 동향

□ 다카공항 제3터미널 사업비 77.9b 증가

- 10월 7일 개장하는 다카 샤잘랄 국제공항 제3터미널 공사비는 당초 예상 사업비 1,361억 Tk 대비 778억 8천만 Tk 증가한 2,139억 8천만 Tk를 기록.
- 본 사업은 JICA가 총 사업비의 70%를 지원. 한국의 삼성물산과 일본의 미쓰비시 후지타는 비행기 37대를 주차할 수 있는 54만2000m²의 제3터미널 건설사업을 수주.
- 터미널 주 건물의 면적은 23만 평방미터. 터미널에는 115개의 체크인 카운터, 64개의 출국심사대 및 64개의 입국심사대, 27개의 수하물 검색기, 40개의 검색기, 12개의 탑승교, 11개의 바디스캐너 등이 설치.

- 또한 1,230대의 차량을 위한 주차시설과 63,000 평방미터의 새로운 수출입 화물단지가 들어설 것. 3터미널 건설 이후 연간 약 2천만 명의 승객이 HSIA를 이용할 수 있게 될 것.

□ 중국의 일대일로가 방글라데시의 사회기반시설을 변화시키고 있음

- 도로에서 철도로, 항구와 공항으로, 강 밑 터널에서 고속도로로, 물의 공공성과 전자 거버넌스로, 석탄에서 태양 에너지로, 중국은 자금과 기술, 전문성으로 방글라데시 전역에서 그 존재감을 느끼게 함.
- 미국 싱크탱크인 AEI(American Enterprise Institute)의 추산에 따르면, 중국의 대방글라데시 투자 총액은 70억 7천만 달러. 이 외에도 중국 기업들은 총 229억 4천만 달러 상당의 공사를 수주.
- 야오원 방글라데시 주재 중국대사는 지난 10년간 중국이 일대일로 (BRI)에 따른 35개 프로젝트에 44억 5000만달러를 투입했다고 밝힘.



□ 마타르바리 전력 프로젝트에 15억 달러 일본 차관

- 일본은 방글라데시 정부와 콕스 바자의 마타바리 석탄 화력 발전 프로젝트에 15억 달러를 차관하기로 합의.

- 일본 ODA 차관에 따라 2억1755만6000엔(약 15억달러)을 지원할 것이라고 재무성이 보도자료를 통해 밝힘. 이 차관의 이자율은 공사 1.60%, 컨설팅 서비스 0.10%, 프론트엔드 수수료 0.2%, 상환기간은 10년 거치가 포함된 30년이 될 것.
- 이 사업은 마타르바리에 1200MW(600MWx2기) 규모의 화력발전소를 설치해 늘어나는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안정적인 전력공급을 위해 시행 중.

□ PM, 이번 달에 4개의 메가 프로젝트를 시작

- 오바이둘 쾨다 도로교통부 장관은 셰이크 하시나 총리가 이번 달에 4개의 중요한 대형 프로젝트를 시작할 것이라고 밝힘.
- 4개의 주요 프로젝트는 다카의 샤잘랄 국제공항의 제3터미널, 파드마 철도교, 다카 메트로 레일의 아가가온-모티질 구간분, 그리고 방가 반두 셰이크 무집 라흐만 터널임. 오바이둘 쾨달은 이 4개의 메가 프로젝트들이 각각 10월 7일, 10일, 23일, 28일 셰이크 하시나 총리 주재로 취임식 계획중이라고 밝힘.

3. 재난상황 및 정치상황

□ BNP는 10월 24일부터 'Final Push'(파업 및 봉쇄)를 계획

- 야당인 BNP는 이번 달 모든 헌법 기관을 포위해 정부가 사임하고 비당권 과도 정부 하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'Final Push'를 할 계획이라고 당 소식통이 밝힘.
- 당은 24일부터 'Final Push'을 목표로 10월 중순 '봉쇄운동(Besiege movement)'을 선언해 원포인트 요구를 관철시킬 가능성이 높음.
- 10월 8일부터 20일까지는 멈추지 않고 시위를 할 것. 그러나, 두르가 푸자(Durga Puja) 기념 행사 때문에 10월 24일까지 간헐적인 시위 중단은 있을 것임.